

도피성 (민수기 35:9-15)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도피성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다. 죄를 지은자가 거기로 피하면 해결을 받고 용서함 받는다. 문제가 생겼다면 어디로 가겠는가? 도피성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성경은 펼치면 거기 전부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세상 움직이는 데에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으로 따라가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그 기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능력 주시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기준으로 살게 되면 자동으로 능력있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 계획없이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원리를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것이다. 성경에는 많은 기준의 말씀이 있다. 예를 들면 율법의 모든 조항이 기준이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고 거기에 걸리면 죽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이 한곳에 모인 곳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원리이다. 하나님은 절대 모든 것을 자기 원리대로 한다. 그리고 폭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을 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하셨다. 아무 말도 없이 맘대로 하면 폭군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셨다. 문제 해결을 자신의 원리대로 하신다. 그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원리가 한곳에 모여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떠나면 문제가 온다. 복음 회복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구약성경은 이 원리를 이야기를 써서 설명하였다. 이해를 잘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떠났을 때 문제 왔다. 복음 떠나지 않았는데 문제 온적이 한번도 없다. 복음 떠나서 우상숭배하면 무조건 문제 왔고 거기서 돌아오면 무조건 문제 해결되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복음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원리이다. 복음 안에 구원이 있다. 복음 안에 응답이 있다. 복음 밖에 응답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응답에 신경을 쓰지 복음에 신경을 덜 쓴다. 이것이 영적 문제인 것이다. 복음 안에 정복이 있다. 복음 누리면 문제 정복하게 된다. 전부 문제에 놀러 있다. 복음 누리면 문제를 정복한다. 그리고 복음 안에 기도 있다. 대부분의 기도가 복음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없다. 복음 안에 치유 있다. 치유 자체를 너무 강조해서 복음이 아닌 이상한 치유를 한다.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복음,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계속 한다.

이 복음 안에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노력이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원리이다.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라는 것이다. 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위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축복 받는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대, 멘토를 진심으로 귀하게 생각하면 복받는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면 복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남미 끝까지를 오래전부터 언약으로 잡고 있다. 미국 살린다. 미국 끝까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중요한 제자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다. 될 수밖에 없는 성경적 전도이다. 사도바울이 현장에서 보여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그 전도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바란다. 남은자, 언약을 잡고 하나님앞에서 있는 자, 그 언약을 세상에 전달하는 순례자의 인생, 결국 그 결과로 온 정복자의 축복,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오늘 우리 도피성이라고 표현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란다.

1. 도피성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다. 완전하고 유일한 도피성이다. 다른 데에는 숨을 곳이 없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숨을 곳이 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14절에 보면 이 도피성을 6개를 만들라고 하셨다. 3개는 요단 이쪽에, 3개는 가나안 땅에. 요단 이쪽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요단을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기 전에 여기에 만들라는 것이다. 15절에 보면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타국인, 그리고 잠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되는 도피성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세계복음화 사상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잠시 살고 있는 사람도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도피성의 혜택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혜택이

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재판받기 전까지 숨어 있을 수 있는 성이다. 모르고 실수로 살인한 경우이다. 이것을 위해 진짜 살인이 무엇인가를 정의해놓았다. 16절부터 보면 살인이 무엇인가? 이런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몇가지 조항을 만들어놓았다. 철원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살인이고, 무조건 죽여야 한다. 그리고 돌이나 나무 연장같은 것으로 죽여도 살인이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다. 누가 미워서 밀쳐서 낭떨어지 떨어뜨려 죽이면 그것도 살인이기에 무조건 죽이라고 하였다. 기회를 봐서 돌려져서 죽이거나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면 살인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잘못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나는 실수인데, 피해자쪽에서는 생각이 다를수 있다. 그 때는 재판을 해야 한다. 그 때까지 도피성에 가서 숨어가서 있을수 있는 것이다. 재판이 끝날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재판을 했는데, 고의로 죽인게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것이 인정되어도 그 도피성에 있어야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25절에 있다. 25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서 살인자를 데려가는데 언제까지 가 있다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때까지 그 도피성에 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집에 돌아갈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실수를 해도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다르니까, 재판해서 고의로 죽인 것 아니라고 해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대 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흘리심을 상징한다. 그것이 되어야 하니 죄가 완전히 사해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까지는 아무리 실수라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리스도를 설명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를 한 것이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도피성에 살다가 무슨 이유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때 피해자가 그 사람을 만나서 죽이면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법적인 것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너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니가 이유가 무엇이든 그리스도를 떠났다면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를 떠났다면 하나님도 책임 안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네가 안 믿으면 하나님 책임 아닌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 외에는 내 책임이 없다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보면 그 살인자에게 대해서는 과실이라고 해도 생명의 속전을 받고 절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절대 없게 하였다. 생명의 속전은 출애굽기 30장 11-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생명을 속해주는 돈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조금 긴데 집에서 읽어보기 바란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상 된 남성은 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한다. 그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니가 이 돈을 내면 너에게 질병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는 부자나 가난한자나 상관 없이 반세겔, 똑같이 내게 하였다. 그리고 그 돈은 성전을 고치고 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다. 그 때, 만일 이렇게 되어지면 이 돈으로 너의 생명을 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요한 이야기이다. 너의 인생의 질병을 없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이 돈으로 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속이라는 것은 이 돈을 내가 받고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돈이다. 그냥 돈이 아니다. 그래도 이 살인자에게는 이 돈의 약속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이것을 상당히 무겁게 보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반드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대제사장이 죽을때까지는 떠나면 안되고 떠나자 죽으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피성과 도피성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하는 제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설명한 것이다. 니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살고 싶으면 이 도피성으로 가야 하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도 그 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한시도 그리스도 내 아들 떠나면 안돼. 그러면 너 죽어. 그리고 그런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나에게 원망하지 마, 너가 그렇게 한거야. 이것이 메시지이다.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다. 당연히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해야 한다. 끝까지 해야 한다. 항상 그 선언이 있어야 한다. 거기서 나갈 이유가 없다. 24시간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24이다. 내 생각이 늘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생각이 온데로 돌아다닌다. 생각이 여기저기서 공격을 당한다. 상처를 입었다. 인생에 영향을 준다. 고치라는 것이다. 이 성을 떠나면 안된다. 이 성 떠나면 너의 탓이다. 너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하나님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놀라운 언약 기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란다. 거기에 응답이 있다. 응답이 얼마나 필요한가? 응답 정도가 아니다. 정복이 거기에 있다. 정복 정도가 아니다. 다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이 안에 있다. 다시 한번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3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죄지지 말라는 것이다. 나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고 하셨다. 내가 너희중에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명령이라기 보다는 부탁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거룩해 지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가? 원죄 이후로 인간은 죄를 이길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죄도 인간은 못 이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 말고는 죄사함을 받는 것 말고는 길이 전무하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해방되고 승리하고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 나의 24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의 24라는 말이다. 나의 서밋시간, 나의 24 그런 뜻이다.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누림으로 기도가 깊어진다. 그러면 그 때 많은 영적인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고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잡는 것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 육신적 힘을 먼저 생각하면 속은 것이다. 그것은 종교이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나중에 후회해도 지나간 세월 되돌아 갈수 없다.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가 일어나야 한다. 이런 기도는 내가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언약을 잡은 기도가 될 때 기도가 변화된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되어지면 거기서 모든 것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알았다. 그래서 다른거 다 필요없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영감이 뭐가 중요하나? 돈이 중요하지. 그럼 엘리야가 들었는가? 들은 사람이 그런 큰 기적들을 일으키는가? 엘리야가 맞다는 것이다. 영감을 달라고 하였다. 이것 눈 뜨고 여기에 들어가야 하고 나도 이것을 달라고 하는게 정상적인 신자이다. 성경의 결론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다. 요셉은 노예가 총리가 되었는데 핵심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꿈이 기도와 언약이었다. 그게 요셉의 24였다. 받은 꿈이. 나의 24는 복음 24 되어야 된다. 쓸데 없는 것 24되면 죽는다. 복음 24. 당연히 기도 24, 그러면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전도 24가 되는 것이다. 이 전도 24 안에 교회 24있고 현장 24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갖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도 깊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수 있을까? 그 출발은 언약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깊은 기도의 비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 그 성을 벗어나지 말아라. 거기에 너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우리 기도 안에서 언약을 고백하면 어느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된다. 전에는 그 언약이었다. 그런데 그게 내 언약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발견되어 지면 언약 뿐 아니라 내 기도와 응답과 변화와 누림이 달라진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변하지 않고 떠나가지도 않는다. 이제 나의 기도가 나의 복음을 증명한다. 이미 복음이 와 있고 모든 능력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깊은 기도의 비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 가지고 모든 것 다 할수 있다는 말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중의 하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깊은 기도의 비밀이 있기 바란다. 그 때 오직 그리스도 하면 우리도 성경과 동일한 응답을 받을수 있다. 성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옛날에는 멀리 있었다. 어떻게 내가 사도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겠나. 내가 어떻게 성경의 기적을 누릴수 있는가, 뭔가 멀리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왜 달라졌을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알았다. 조금 누리려고 발버둥 쳤다. 전과는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내가 얼마나 될지, 다섯달란트일지, 두달란트일지 모르지만 나도 성경처럼 할수 있다. 우리는 정말로 남이 끝까지 가는 것이고 미국 교회에 복음을 전달할 목사님 제자들을 계속 찾아내는 것이다.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미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 것 뿐이다. 전과는 다르다. 왜 달라졌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 누림으로 응답을 받음으로 내 눈이 자꾸만 달라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이 소망이 언약으로 들어와서 진짜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 든다. 되어지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얼마나 될지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달라졌다. 달라진다. 사도바울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사도바울이라도 좀 심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죄인인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

다. 그런데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 사도바울은 언약이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소원과 사명이 확실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 언약을 아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나도 사람 만나면 이런 말 할수 있다. 너 나를 따라오면, 따라만 오면 나는 너의 인생에 담 나게 할수 있다. 니가 다른데로 가면 어쩔수 없다. 그런데 이유가 뭐든 나를 따라오면 나는 너를 전도자 만들 수 있다. 사도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증거를 본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면 능히 말할수 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부족한 것, 죄지는 것, 로마서 7장의 고백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이다. 원리 안 바뀐다. 그대로 한다. 이미 말 다 해놨다. 안 바뀐다. 그대로 한다. 그러면 너무나 쉽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냈다.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답이 이미 와 있다. 내 기도응답 얼마나 필요한가? 그 답이 이미 와 있다. 이것을 놔두고 기도를 자꾸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늦어도 빠르게 가야 한다. 그래야 끝이 있다. 그리고 끝에 가면 갈수록 되어지는게 나타난다. 빠르게 안하고 무슨 생각이 많다면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애를 태워야 한다. 빠르게 할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출발은 더 늦은 것 같다. 그러나 끝이 다르다.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매일 노력해야 응답받으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받으라는 것이다. 예사로 받아서 믿기는 믿는데 세상사람보다 못하다면, 세상의 최고 부자에게 부자되라는 말이 아니다. 힘쓰고 애쓰고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는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한가? 그리스도 답을 누림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정복을 해버리는 것이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다. 할수 있느냐는 것이다. 할수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한 번 해본적 있는가? 이걸 해보고 생각 바꿔야 한다. 한번 해서 생각 절대 안 바뀐다. 얼마나 찌들어 붙었는데, 계속해서 결국 내 생각을 뒤집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다른 인간이 되고 다른 인생이 열리는 것이다. 분명히 완전한 답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 완성한 답인데, 그것을 믿고 구원 받은 자가 이게 답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된 일인가? 단순한 응답 한번이 아니다. 단순한 치유 한번이 아니다. 평생을 두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깊은 기도 24가 있어야 한다. 마음을 막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할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평생에 한번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막 돌아다닌다. 생각이. 나도 그랬다.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게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다. 이런거 있어야 한다. 감사하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진짜 하고 싶은 기도이다. 이 기도를 할수 있는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언약하다. 생각이 막 돌아다닌다. 그 생각을 모아놓고 1분이든 2분이든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기도할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생명건 기도이다. 기도하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언약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내 기도 뿐이다. 모든 것은 결과 불과하고 내가 할 일은 이 언약을 누리고 기도하는 것 뿐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 때 내가 내 기도에 생명을 걸게 된다. 당연히 그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고 언약을 기도하는 기도이다. 이것이 나의 기도요, 나의 서밋 24이다. 이 결과 전도는 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때 나오는 전도 해야 한다. 막 돌아다니는 전도 아니다. 전도 하려고 여기 저기 생각하고 그렇게 아니다. 쌓이는 전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전도이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는 다른 전도가 일어날 뿐 아니라 다른 곳으로 안 간다. 이게 눈이 열려서 이 기도에 생명을 건 전도자가 계속 나와야 한다.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은 전도,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사도바울의 전도가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신앙고백 안에 있다. 개인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답이다. 이 성을 벗어나면 안된다. 너 나가면 죽어. 절대 나가지 마. 대제사장의 죽음이 니 인생의 답이야.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받으라고 하였다.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내게 출발이 뭐냐니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어야 한다. 부족해도 기도를 정해진 시간을 두고 지속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날 자꾸 눈이 열린다. 눈이 열려야 한다. 응답이 많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은 일회성이다. 눈이 열리면 얼마나 많은 응답이 계속 올지 모르는 것이다. 눈이 열리면 일종의 차원이야.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차원이 한차원 올라갔어. 이것이 눈 열린 것이다. 축복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다. 이 언약의 축복이 렘넌트 전도자에게 충만하기 바란다.